

# “2기 경제팀 과제 ‘무엇’ 아닌 ‘어떻게’... 현장에 답 있다”

## 文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경제·소통’ 국정 키워드로 선정  
“정책,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큰 틀에서 ‘경제’와 ‘소통’을 국정 키워드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라면서 “지금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을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운을 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한 뒤 순차적으로 ‘경제’와 ‘소통’을 거론했다. 경제와 소통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올해의 큰 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키워드 관련 “우리 정

부 1기 경제팀(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필두)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 2기 경제팀(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

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숨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며 “그들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에게 ‘경제 주체’들과의 활발한 스킨십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소통 키워드 관련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라면서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 홍보, 전담장구를 마련해주시 바란다”고 했다.

한편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공포가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법안 공포를 의결하면서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사후이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게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참모진 개편이 어 개각?... 3金 거취 관심

(김부겸·김현미·김영춘)

### 노영민·강기정·윤도한 임명 설연휴 전후 개각단행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노영민 주중대한민국대사(비서실장)·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수석비서관)·윤도한 언론인(국민소통수석비서관) 내정을 골자로 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진행한 가운데,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골자로 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 전망이 제기됐다.

우선 문 대통령은 8일 임종석 비서실장·한병도 정무수석·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노 주중대사·강 전 의원·윤 언론인으로 교체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이해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국정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새 인물에 따른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전후로 개각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 다음에는 개각이 단행될 것”



(왼쪽부터) 올해 개각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이라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개각 대상자’로 꼽힌다. 여기에는 김 행안부 장관과 김 해수부 장관, 김 국토부 장관 등이 해당된다. 더욱이 이들 3명 장관의 공통점은 3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진행된 점을 비춰볼 때 개각 시기가 빨라졌다. 다만 인사 검증 등으로 인해 청와대 개편 시기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이 진행되면 김 행안

부 장관과 김 해수부 장관, 김 국토부 장관 등은 개각 대상자로 유력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일찌감치 오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또 개각 대상자로 거론되는 장관들은 여권 중진 의원들이다. 정국 주도권이 걸린 내년 총선에서 이들의 출마는 여권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또 다른 ‘국회의원 출신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이번 개각 대상자에서 제외될 조짐이다. 이들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지만 재임 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 라인 개편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뿐 아니라, 안보라인도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또) 2차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설 기차표 예매 첫날

설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 앞에 열차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전투복 위장패턴 변경 신중해야”

### 홍희범 월간 플래툰 편집장 “패턴보다 소재·형상 개선이 먼저”

지난 2014년 8월 보급이 완료된 육군의 ‘화강암 위장 패턴 전투복’이 새로운 위장 패턴으로 변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장패턴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위장패턴의 변경은 전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요가 먼저 제기돼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군의 전투복은 위장패턴 보다 소재 및 형상(디자인) 등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장 패턴 변경 가능성은 지난 2017년 11월 부터 언급이 돼 왔다. 당시 육군은 위장패턴을 비롯한 소재 및 형상 등 제반에 대한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수의 일선 육군 간부들은 “일명 ‘호랑이 위장 패턴’으로 불리는 시험제작용 전투복을 부대 주임원사들이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고,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도 동일한 전투복을 착용하고 일선을 시찰하는 사진들이 돌고 있다”면서 “군수관련 육본 화상회의에서 올해 또는 내년께 이 전투복이 보급될 것이라는 말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육군의 사단장, 주임원사 등 주요 직위자 등에 한해 90 여벌의 ‘호랑이 위장 패턴’ 전투복을 시착용으로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장 전투복의 위장 패턴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이즈 표준화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전달된 전투복은 회수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장 패턴의 변경은 지난해 7월 김용우 육군 총장이 주관한 비공개 행사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육군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상명대학교 의류학과는 호랑이, 플래탈, 태극 등 다수의 위장 패턴과 개선된 전투복 디자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수의 행사 참가자들은 상명대 디자인이 다양한 전투환경에서도 일정한 위장효과를 낼 수 있는 ‘멀티 테레인 패턴(MTP)’과는 동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육군의 일부 자문위원들은 “전장환경 변화에 대한 소요제기 및 시제 전투복의 야전 적합성 평가가 없이 홍보 위주로 시제 전투복을 공개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면서 “전투복 위장 패턴을 비롯한 전반에 대한 육군의 노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호응을 얻기 전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육군은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 확정된 사안이 아닌 시제 전투복을 공개했고, 육군 관련 행사에서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시제 전투복을 노출시켜 왔다.

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장병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에 대한 육군의 강한 개선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개를 해왔던 상황”이라며 “위장 패턴의 변경은 향후 육본과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이 관련제반 규정과 절차에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형철 기자 captinn@

## 김정은 中 방문... 북미 회담 앞두고 非핵화 논의

### 靑 “남북·북중·북미 교류 진행 중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되길 기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오전 11시쯤 열차를 이용해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북중 교류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남북·북중·북미 교류가 진행 중”이라며 “그 각각의 교류가 서로 선순환을 해서 하나의 발전을, 또 다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 위원장 방중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 양쪽으로부터 소통을 해왔고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번 중국과 북한간 교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TV에 따르

4차 방중 김정은 수행 주요 인물

<b>리설주</b>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b>김영철</b>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b>리수용</b>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b>리영호</b> 외무상	<b>박태성</b> 과학기술·교육 담당 부위원장	<b>노광철</b> 인민무력상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김 위원장의 ‘복심’, 미국·한국과 핵심 대화 파트너	외교정책 브레йн 중국과의 전통적 ‘당 대 당’ 외교 총괄, 핵문제 관련 핵심 전략가	대미 협상 등 외교 핵심 실세	북한 핵심 성장 전략인 과학·교육 책임자	북한군의 대외업무 담당하는 인민무력상 수장
1·3·4차 방중 수행	1~4차 수행		3·4차 수행		

연합뉴스

면, 김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0일 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 완화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추측

된다.

또 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원으로는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리영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승준 기자